



濁流清論

제74호 2023년 11월 1일

발행인: 이 재 호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시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1
걱정과 기대 : 신임 이사장 취임에 부친다	
특집	5
- 2023-2학기 신임 교원 소개 (가나다순)	
소통과 담론	10
- 아주대학교 첨단학과	
교수들의 건강칼럼	12
- 비아그라의 변천사	
저서 소개	14
- S&OP 중심의 공급사슬관리	
-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	
- 에티모버스, 어원으로 보는 세상	
소식	17
- 김선용 이사장의 취임에 대한 성명서 발표	
- 2023학년도 총장평가 시행	
- 2023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환영간담회 개최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걱정과 기대 : 신임 이사장 취임에 부친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 재 호

지난 9월 18일, 김선용 대우학원 이사가 제 5대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팔월 하순에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우리 대학 재단의 신임 이사장 취임에 언급하며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들어보니 이분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대학이 과거 입길에 오르내렸던 여러 사립대학들처럼 설립자 가족에 의한 대학 사유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였다. 한편 교내 어떤 교수님으로부터는 신임 이사장이 설립자 가족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듣기도 했다.

걱정과 기대, 이 두 단어가 설립자인 고 김우중 회장의 자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대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반응이다. 당연히 이 분이 어떤 분일지 궁금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확고한지, 법인과 학교 내지 병원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다.

두 해 전 우리 대학의 17대 총장 선임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회 대표단 일원으로 당시 상임이사였던 김선용 이사를 만난 적이 있다. 핵심 이슈는 총장 추천위원회 교수위원의 숫자였다. 15대 총장선임 시 추천위원회 위원 중 대학평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되 자격은 교수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었다. 그런데 15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16대 총장선임 때 혼란이 발생했다. 법인이 대학평의회 추천위원회에 대한 단서를 임의로 빼고 공고를 한 것이다. 결국 대학평의회 구성원인 학생, 직원의 요구에 의해 교수, 학생, 직원 대표를 각 1명씩 추천하여 총장선임을 진행한 바 있었다. 교수회는 16대 총장선임 시 발생한 혼란의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으므로 교수대표를 3명으로 회복시키고 학생, 직원대표 1명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법인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였다. 그런데 논의 자리에서 상임이사가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법인이 이를 수용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신선한 모습이었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물론 추호석 전 이사장의 최종 결정이 있었을 것이나 상임이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하는가가 관건이다. 우리는 법인이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걱정되는 측면은 줄이고 기대되는 측면은 늘릴 일이다.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늘리고 우리 대학 발전에 법인이 더 기여하는 것이 그 길일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취임 직전에 교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인에 전달하였다(교수회 소식 1번 참조).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요청했다. 법정부담금 100% 부담을 위시한 투자 확충, 법인이 행사하는 인사권 축소, 개방이사 추천과정의 변경, 교수회의 대학평의회 교수대표 선임권 회복이 그것이다.

10월 11일에 이사장 취임 축하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아주대학 구성원들 앞에서 신임 이사장은 준비한 취임사를 낭독했다. 취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첫째,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의 이념을 새기고 계승·발전시키겠다. 둘째, 학교와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학교법인은 그 실행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셋째, 학교법인의 기본적 소명인 재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 특히 사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재정지표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우학원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소중한 일터로 만들겠다.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많이 고민하겠다. 원칙적이고 더할 나위 없는 목표들이다. "법정 부담금 비율 개선 목표 설정 및 지속적 확대"라는 약속은 교수회와 이전부터 이를 요구한 대학평의원회의 요구에 답한 것으로 보였다.

10월 24일에 교수회 의장단과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이 신임 이사장을 만났다. 1시간 15분에 걸친 면담이었다. 교수회 성명서의 취지와 네 가지 요구사항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했고 그 외 학교 발전 방향, 법인에 대한 의료원의 종속성, 본교와 의료원 간의 장벽 낮추기 등 다양한 측면의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사장은 주로 듣는 편이었다. 이사장은 중간 중간 취임사에서 밝힌 신념들을 다시 강조하면서 학교와 의료원이 구상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인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총론에 있어서는 생각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각론에 들어가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불편한 마음 없이 그 차이점들에 대해 얘기하고 들을 수 있었다. 좋은 출발이었다.

우리 아주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기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임 이사장이 지금의 초심을 유지하면서 서로 소통한다면 우리 대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서 50주년 기념 캐치 프레이즈처럼 '세상을 바꾸는 대학'이 되는 해피엔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걱정을 기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생각을 해 본다. 교수회 성명서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김선용 신임 이사장이 아주대학 발전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교수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판적 협력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특집

2023-2학기 신입 교원 소개 (가나다순)

경영학과 김진학



1. 자기소개: 저는 경영학과에 새로 부임한 조교수, 김진학입니다. 2016년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경영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동안 미국 남알라바마 주립대학교와 북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아주대학교에 전임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학 뿐만 아니라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응용수학/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응용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주로 최적화 이론과 최적화 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산운영관리, 기계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최적화 기법(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볼록/비볼록 최적화)으로 모델링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 대표 저서 및 논문: 2021년에 Mathematics of Operations Research 저널에 투고된 "Convexification of permutation-invariant sets and an application to sparse PCA" 라는 논문을 대표 논문으로 뽑고 싶습니다. PCA는 비지도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으로부터 얻어진 새로운 변수인 principal components(PC)가 해석가능성이 낮아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고안된 Sparse PCA에 대한 최적화 모델의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새로운 모델은 기존의 Stanford와 MIT연구진들이 제시한 모델보다 정확도면에서 월등히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3. 대표 직함(학교 외 소개하고 싶은 직함): 별도의 특별한 직함은 없습니다.

4. 그 외: 아주대의 훌륭한 학자분들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주대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윤태광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도 가을학기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신입교원 윤태광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아주대학교 교수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KAIST 신소재공학을 전공해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에는 KAIST 웨어러블 플랫폼소재 기술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 및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웨어러블 에너지 기술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기간동안, 리튬이온배터리 및 차세대 배터리의 전극/전해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체에 착용 가능한 친환경-고안정성 에너지 저장 기술들을 다수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수자원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개념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제안하고 구현하였습니다. 새로운 물리적 현상을 보고한 이후, 해수 활용, 땀/혈액 등의 체액 및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를 활용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들로 확장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우수한 환경을 활용하고, 훌륭한 교수님들께 적극적으로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뛰어난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학과 이정인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수학과 신임 교원으로 임용된 이정인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학사 (2017),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에서 박사 (2020)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고등과학원 수학부 연구원 및 허준이수학난제연구소 CMC Fellow (명호철조교수)로 근무하다 올해 9월 아주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정수론, 구체적으로는 정수론에서 연구하는 대상들의 family에 대한 통계적인 성질들을 연구하는 arithmetic statistics입니다. 대표적인 논문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ungin Lee, Universality of the cokernels of random p -adic Hermitian matrices, arXiv:2205.09368, to appear in Trans. Amer. Math. Soc.
2. Jungin Lee, Joint distribution of the cokernels of random p -adic matrices, Forum Math. 35 (2023), no. 4, 1005–1020.
3. Jungin Lee, On the lower bound of the number of abelian varieties over F_p , Int. Math. Res. Not. (2022), no. 6, 4290–4317.
4. Jungin Lee, On a number of isogeny classes of simple abelian varieties over finite fields, Math. Z. 296 (2020), 685–693.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연구, 교육 및 봉사에 힘쓰며 학과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학과 이지예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신입교원 이지예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을 통해 훌륭하신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번 2학기에 아주가족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경력은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외과병동에서 약 5년 반동안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연구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위암 진단 직후 환자의 디스트레스(심리적 고통)입니다. 암 진단 직후 환자가 경험하는 불안, 우울, 불확실성 등의 디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치료 시작 전까지 이를 간과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디스트레스가 환자의 치료 과정이나 후예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들의 디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암 수술 이후 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 연구이고 특히 저는 효과적인 교육 전략에 관심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환자교육인데, 간호사가 이러한 환자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헬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저의 발전이 학교의 발전이고, 학교의 발전이 곧 저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교육, 연구, 봉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안전공학과 장 원 준

안녕하세요. 2023년 가을학기 환경안전공학과 신입교원 장원준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 아주대학교 교수님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2017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및 수소 생산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19년도부터 경남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했고, 이번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 임용되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 화석연료 고갈,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폐자원 에너지화, 이산화탄소 자원화, 수소 생산, 바이오연료 고품질화, 그리고 촉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와 논문으로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수소 생산을 위한 공정 조건 연구 및 검증[W.-J. Jang, "Design of high-temperature shift using waste-derived synthesis gas: Thermodynamic approach and practical reaction optimization"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293 (2023) 117509]과 그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 촉매 개발 및 스케일업[W.-J. Jang, "Design and scale-up of a Cr-free Fe-Al-Cu catalyst for hydrogen production from waste-derived synthesis gas"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249 (2019) 72]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아주대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환경안전공학과와 아주대학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담론

아주대학교 첨단학과

아주브레인추진사업단장 김재호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가능자원의 급감은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택이 아닌 살아남기 위하여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2022년 12월 22일에 2024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계획 안내 공문을 통하여 '학과의 정원 조정과 첨단학과 신·증설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공지된 내용의 핵심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학부를 신설, 통합, 폐지하거나 학과/학부 간의 입학정원 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첨단학과 등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고 교육부에 추가로 정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3개의 기존 첨단학과 (첨단신소재공학과, Si모빌리티공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와 4개의 신설학과 (지능형로봇공학과,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경영인텔리전스학과, 혁신신약학과), 총 260명의 순증인원을 신청하였다.

우리대학은 3개의 기존 첨단학과 (첨단신소재공학과, Si모빌리티공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와 4개의 신설학과 (지능형로봇공학과,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경영인텔리전스학과, 혁신신약학과), 총 260명의 순증인원을 신청하였다.

교육부가 2023년 4월 27일에 발표한 대학별 평가를 통한 순증 인원 배정 결과는 가천대 150명, 세종대 145명, 성균관대 96명, 고려대 56명, 동국대 45명 등 수도권 9개의 사립대에 총 599명의 정원이 배정되었으나 우리대학은 순증 인원을 한명도 배정받지 못하였다.

교육부의 주요 평가 항목과 내용은 ①제시된 첨단학과가 소속 대학교의 특성화 분야 일치 여부, ②첨단학과의 기 확보 교원 현황 및 증원 계획의 적절성, ③첨단학과 설치에 따른 대학 정원의 자체 노력 등이다. 즉,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구조 조정을 실행하고, 기존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또는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교원과 교육 여건이 구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우리대학은 우리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학과에 대한 구조조정 보다는 순증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의 첨단학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교원 확보, 실험실습기자재 보유 여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교육부의 최종 평가는 "자구 노력이 부족하고 연계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준비가 부진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반면에 큰 규모로 순증 인원을 배정받은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공통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다수의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과 정원을 수십명의 규모로 과감하게 조정하는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규모가 큰 새로운 첨단 교육단위를 제시하였다.

우리대학은 2025년에 한번 더 순증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첨단학과를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2025년에 순증을 신청하는 첨단학과는 우리대학이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이 갖추어진 학문분야이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교원이 총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연구 역량을 갖춘 학교 내 기존 교원으로 1차적인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극소수의 기존 교원과 대다수의 신입 교원으로 우리대학의 특성화를 리드할 첨단학과를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우리대학에 내재된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학과에 소속된 교원이 새롭게 구성된 첨단학과에 critical mass가 달성되는 수준으로 소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대학의 상황에서 겸직 교원 중심으로 학과가 구성되면 교육과 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여러 경우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우리대학의 발전에 핵심이 되고 교육부에서 언급한 “소속 대학교의 특성화 분야 일치”를 위해서는 순증을 요구하는 첨단학과는 적정규모의 전임교원과 학생정원이 현재 아주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대학교가 더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 학과 개편 및 통합 등의 구조 조정, 단과대학의 벽을 없애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책과 함께 경쟁력이 확보된 기존학과와 구성을 기반으로 신규 첨단학과를 구성하고 추가로 교원과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논의를 구성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주대 발전에 핵심이 되는 첨단학과가 만들어지고 교육부로부터 신규 인원 증가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원들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23년 10월 6일

아주브레인추진사업단장 김재호

교수들의
건강칼럼

비아그라의 변천사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최종보

성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는 비아그라 사용전과 사용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와 같은 경구용 약물이 없던 시절에는 마땅한 약물 치료가 없어 주사제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그 부작용과 비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아그라가 널리 사용된 이후에는 일단 비아그라와 같은 경구용 약물로 치료 후에 그 효과가 만족하지 않은 경우 보다 침습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화이자제약이 심장 질환 치료 목적으로 개발한 '실데나필'이라는 물질로, 임상 시험을 하는 중 환자들이 초과로 지급되어 남아 있는 약의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의 적응증을 성기능장애 치료로 변경하게 되었고, 추가 시험 후 1998년도에 '비아그라'라는 상품명으로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이 소개될 때에는 약의 샘플을 자유롭게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비아그라의 경우는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들에게만 의사 면허번호와 서명을 받고 딱 2알씩만 샘플을 제공하여 너무 적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그 이후에 발매된 발기부전 치료제 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과 동료들이 샘플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밖에 없어 사이가 서먹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비아그라와 같이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약물은 모두 6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6가지 중 2개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제약의 '자이데나'와 SK 케미컬의 '엠빅스'로 모두 비아그라와 비슷한 효능을 보여 활발하게 사용 중입니다. 아직 FDA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이데나는 미국에서 승인을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비아그라 발매 이후에 '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시알리스를, '바이엘'에서 레비트라를 출시 하였습니다. 비아그라와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가지기 때문에 분자 구조식은 비슷하지만 각각의 특성상 복용법과 사용법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아그라, 자이데나, 엠빅스 등은 사용하기 1

시간전에 복용하지만 시알리스는 3시간전 그리고 레비트라는 30분전에 복용을 하여야 합니다. 레비트라는 혈중 농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 30분 전에 복용해도 되지만 반감기는 매우 짧아서 효과 지속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시알리스는 그 반대로 2시간이 지나야 혈중 최대 농도가 되지만 반감기가 매우 길어 36시간 정도는 우리 체내에 잔류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성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Weekend Pill'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청한 시알리스 광고 중 하나의 이야기는 토요일 저녁에 부부가 관계를 하기 위해 남편이 시알리스를 복용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와인을 들고 들이닥쳐, 예정에 없던 손님 대접을 마친 뒤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때 쯤 눈이 떠진 부부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성공적인 부부 관계를 마치게 됩니다.

가장 늦게 발매된 제피드는 일본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역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발매되어 사용 중이며 효과는 비아그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격 정책의 문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관계 전에 1알씩 복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구용약물의 작용은 음경의 발기를 도와 주어서 더 쉽게,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약리작용이므로, 음경해면체의 구조적 이상이나 음경해면체로 유입되는 동맥이나 정맥의 혈류에 있을 경우 등에는 효과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반감기가 비교적 긴 시알리스와 자이데나는 일반적인

사용 용량의 절반 정도 되는 작은 용량을 매일 먹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속적으로 음경 해면체 세포와 신경들을 자극하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만드는 것을 환자분 들이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적응증으로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주간 복용하기도 하며, 폐고혈압의 치료로 실데나필(비아그라)이 사용됩니다. 저용량의 시알리스(타다라필)를 매일 복용하면 성기능은 물론 배뇨기능도 개선되어 미국 FDA에서 전립선비대증의 치료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아그라와 같은 경구용약물들은 성기능개선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적응증은 점점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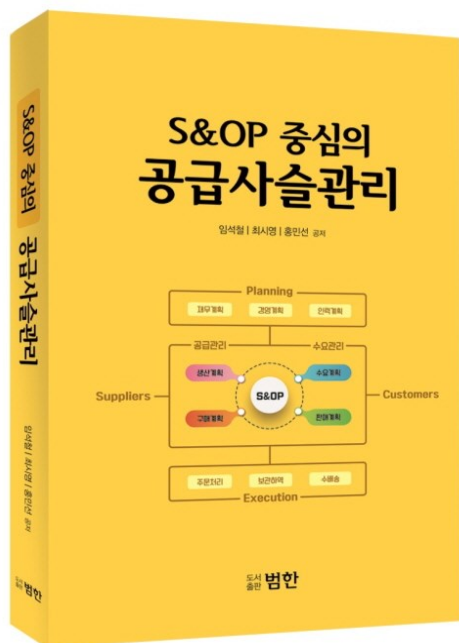


저서
소개

S&OP 중심의 공급사슬관리

공저 임석철 /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범한 | 2023.07.20.



여러 사람이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관리)을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인식하고 표현하지만, 이 책은 SCM을 “기업의 운영성과를 극대화하는 운영체계(Operating System)”라고 요약한다. Microsoft사의 Window로 대표되는 컴퓨터 운영체계 위에서 컴퓨터의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처럼, SCM은 기업의 모든 활동, 즉 영업, 생산, 구매, 재고, 개발, 재무 등이 S&OP(Sales & Operations Planning: 판매운영계획) 회의로 대표되는 하나의 기업 운영체계 위에서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향해 계획대로 실행하는 기업 운영 방식이요 경영철학이다.

이 책이 기존의 SCM 분야의 국내외 서적과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SCM의 핵심이 되는 S&OP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SCM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실무진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네 개의 기업 SCM 혁신 프로젝트 사례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밖에도 제조기업의 핵심 업무프로세스인 수요관리, 재고관리, 구매, 생산, SCM 경영전략과 수단, 그리고 향후 요구되는 ESG 등 SCM 관련 핵심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아주대 공학대학원 물류SCM학과와 세 명의 교수가 주제별로 나누어서 1,2,3장(임석철), 4,5,9,10,11장(최시영), 그리고 6,7,8장(홍민선)을 각각 저술하였다.

저자들은 기업의 임원과 중견 실무진들이 SCM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준비하거나, 또는 이미 시작된 SCM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룹스터디 교재로 이 책이 활용되기를 가장 희망한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운영탁월성(Operational Excellence)을 갖춘 기업들로 우뚝 서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SCM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학과 대학원의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좋도록 장별로 PowerPoint 자료도 제공한다.

저서
소개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

저자 조선미 /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북하우스 | 2023.04.20.

“25개월 아이가 소리를 많이 질러서 ‘소리지르지 않아요. 작게 얘기해도 들을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도 계속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전 메일로 받은 상담내용이다. 부모들은 설레임을 갖고 육아를 시작하지만 막상 아기가 잠을 자지 않으려 하거나 동생 물건을 계속 뺏고 괴롭히는 첫째의 행동이나 학습지를 할 때마다 때를 쓰는 초등학생과 마주하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2023년 4월에 출간된 <현실 육아 상담소>는 부모들에게 직접 강의했거나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내용중 의미있는 것들을 선별해 엮어냈다.

예전에 비하면 아이에게 소리치거나 체벌하는 부모가 많이 줄었다. 아이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읽어주고, 웬만한 요구는 들어주려고 애쓰는데 왜 육아는 점점 어려워지기만 할까.

좋은 양육이란 애정과 통제의 균형이 적절할 때 가능하다. 애정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자제력이 약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인내심이 떨어진다. 반대로 통제가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위축되고, 소심하며, 자율성이 부족하다. 지금 이런 부모는 많이 줄었는데도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소아정신과를 방문하고, 등교를 거부하며,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친구 같은 부모’, ‘마음 읽기’, ‘자존감 위주’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기보다 부모의 무의식적 소망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부모는 권위를 잃었고, 잃어버린 권위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현실 육아 상담소>에서는 훈육에 대한 이론이나 부모-자녀 관계, 자존감과 같이 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개념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법, 효과적으로 지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한편, 사례별로 어떻게 아이를 훈육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알려준다. 특히 떼쓰기, 징징대기, 난폭한 행동하기, 막무가내 고집 부리기, 빠치기와 같은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원칙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태도가 개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 책은 학령 전기와 학령기 아이들 뿐 아니라 신생아기를 벗어난 유아,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뿐더러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성인에게도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저서
소개

에티모버스, 어원으로 보는 세상

저자 박만규 /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파롤앤 | 2023.09.20.



이 책은 다양한 단어들의 어원을 살펴보면서, 단어들이 품고 있는 역사·문화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함께 결합하여 이야기의 형식으로 전하는 책이다.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쓰는 어휘들의 어원에는 개념이 처음 형성될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담겨 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단어들의 의미 변화와 그 궤적을 탐색해 보면 선조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분류와 만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가지는 사고의 보편적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한편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어원에 관해 잘못된 정보들, 즉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

님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understand를 '(상대방보다) 아래에 선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소개를 하고 이해한다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겸손함'을 뜻하는 행위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원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이고 교육적으로도 명백한 오류이다. 언어학자로서 이를 바로잡고 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의 일부이다.

골프 관중이 '갤러리'로 불리는 이유

'팬덤'은 그냥 '팬클럽'이 아니야!

'Goodbye'가 약자일 줄이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나'라는 폭력성

'당선인'이 틀리고 '당선자'가 옳은 이유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의 차이점은?

바이러스는 액체였다?

'마스크'와 '마스카라'는 무슨 관계?

'위드'(with)는 '함께'가 아니었다?

'까치 설날'과 '선달'의 기원

나이를 왜 '먹는다'고 할까?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이유

왜 서양의 왕들은 같은 이름을 쓰면서 2세, 3세를 붙일까?

약칭의 세계, '엘리자베스'와 '리즈'에서 '롯데'와 '메리엇'까지

왜 영어의 월(月) 이름은 숫자로 되어 있지 않지?

'스승'의 세 가지 의미 - '스승'이 teacher가 아닌 이유



소식

교수회 소식

1. 김선용 이사장의 취임에 대한 성명서 발표

아주대학교 교수회에서는 2023년 9월 18일부터 김선용 이사가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성공적인 이사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 보러가기 <https://prof.ajou.ac.kr/prof/board/board01.jsp>

2. 2023학년도 총장평가 시행

아주대학교 최기주 제17대 총장에 대한 총장평가가 2023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약 열흘간 시행되었다.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재직중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694명 중 176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율은 25.4%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가결과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서술형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수님들께 공개할 것이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회의장이 총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3. 2023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환영간담회 개최

2023년 10월 17일(화) 15:00, 18일(수) 13:30 양일간 울곡관 263호 교수회 사무실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재호 의장, 호정화 총무를 비롯하여 이틀동안 신입교원 총 7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간략한 소개의 시간을 비롯하여 각각의 연구분야와 근황을 공유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학기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신입교원 지원 내용 관련하여 개선된 상황을 공유하고, 신입교원으로서 느끼는 교원 처우 및 신입교원 지원 방식의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신입교원들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다양성 부족과 오랜기간 동결된 재정 관련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교수회에서는 이 사안들의 검토 및 개선에 힘쓰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수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위원회: 책임편집 김홍표

김홍표, 박대찬, 박영준, 박재연, 예영민, 오동석,
이규인, 이흥재 정태선, 최영화, 호정화